

# 신발위 선정기준 적절성 논란

〈신문발전위원회〉

### 한겨레·오마이뉴스 등 12곳 157억 지원

### “대부분 親盧매체 선정”... 新권언유착 의혹

신문발전위원회가 지난 4일 12개 언론사를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놓고 그 타당성과 선정 기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선정된 언론사 대부분이 친노(親盧) 매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신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는 것은 세금으로 특정 신문사를 지원했을 경우 나타나는 언론의 독립성 문제. 세금 지원을 받은 언론사가 언론 고유의

기능인 권력에 대한 감시·비판·견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출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조성되는 ‘공적자금’이다. 유일상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은 “언론이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는 순간 ‘홍보지화’될 것”이라며 “돈을 쥐는 의견의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식물 언론’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지원은 지난달 29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배치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조항에 일부 위한 관정을 내리면서 “신문의 자유는 개별 신문의 존재와 내용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신문의 경쟁을 왜곡하지 말 것까지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의 결정 취지에 비추면, 개별 신문에 대한 정부의 경영자금 지원은 시장을 왜곡하게 돼 헌법 상의 시장경제 질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정기준과 과정을 놓고도 말이 많다. 기준 자체가 ‘신문 길들이기’ 차원의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발상에 동의할 수 없으며 ‘식물 언론’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업광고 연간 50% 이하 ▲자료 신고 ▲사회적 책임 ▲공정성과 공익성 ▲연수제도 운영 ▲신문법 위반 여부 ▲언론중재법 위반 여부 등이다.

하지만 이들 기준에 대한 배점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지, 나아가 검증은 제대로 됐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세부 평가 항목의 ‘사회적 물의를 빚었는지, 지역 감정 또는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였는지, 공정 보도 등과 관련한 언론단체·학계·시민단체로부터 심각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은 정부가 언론사를 자의적으로 차별할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는 게 언론학자들의 중론이다.

이와 함께 지방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신문사가 또 다시 지원



국방부 시설을 점검 5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육·해·공군 전군에 군사대비태세 강화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국방부 소속 사병들이 청사 앞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주공 등 공급 아파트 공정 40%돼야 분양”

### 내년부터 4만여가구

내년부터 주공 등이 전국에 짓는 아파트와 수도권 지자체·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전체 공정의 40%가 진행돼야 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달 중순부터 무주택 3자녀 이상 가구는 분양주택의 3%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고 국민임대주택도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사업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주어지던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혜택이 사라져 이를 추진하던 여의도

일대 아파트 단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11면〉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해 주공과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공정이 전체의 40%를 넘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자치경찰제 1년 연기”

### 관련법규 국회처리 지연

당초 내년으로 예정됐던 자치경찰제의 전국 시행이 1년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5일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체 하에 내년 7월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08년 7

월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 10월부터 17개 기초단체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 전면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어 일정을 늦춰 잡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국회 행차와 법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9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확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면 시행이 내후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정호기자 cki@kwangju.co.kr

## 혁신도시 市·道갈등 일단락

### 당초 합의대로 나주 금천면 동악리 중심 추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당초 시·도의 합의대로 나주 금천면 동악리를 개발중심으로 해 조성된다. 5일 전남도는 공동혁신도시 개발 중심축을 광주쪽으로 2.5km 가량 옮기자는 광주시 제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통보했으며, 박광태 시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개발중심축 이동 문제는 전남도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개발중심축 이동을 놓고 빚어졌던 시·도간 갈등이 봉합됐다.

시·도는 각각 공동혁신도시와 광주시 사이의 신 산업단지 조성안의 시·도지사 합의 사항인 만큼 실무팀의 현장 실사와 협의 등을 통해 공동

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혁신도시 중심축을 당초 예정지인 나주시 금천면 동악리 정점에서 2.5km 정도 광주쪽으로 가까운 나주시 산포면 지석강 인근으로 이동하자는 광주시의 제안에 대해 ‘불가 입장’을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했고, 시·도지사 합의와 건설교통부 승인, 이전기관의 현장 확인 등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제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도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 “혁신도시 조성

에 따른 시·도간 이견은 없다”며 “전남도의 뜻대로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는 또 공동혁신도시 지구지정 면적을 당초 200만평보다 늘어난 250만평으로 합의하고 오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개발중심축 이동 문제가 일단락됨에 따라 신 산업단지 조성 방안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시·도지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신 산업단지 위치와 규모 등에 합의하면 공동 합의문 등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최정호기자 chae@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42초같은 생각이 더 걱정이다

### 전남도 예산 4조 눈앞

#### 올 추경예산안 3조9천억 요청

전남도가 예산 규모 4조 원 시대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전남도는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인 3조7천957억 원보다 4.6%인 1천733억 원 증가한 3조9천690억 원 규모로 편성, 도의회

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본예산 2조9천759억 원보다 899억 원(3.0%) 증가한 3조65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8천198억 원보다 10.2%인 834억 원이 늘어난 9천32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투자분야별로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미국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마련, 민유림 조립,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 등 권역별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34억 원이 투입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광고접수안내

광주일보 인쇄광고 광고는 FAX로 광고요청 광고료는 우송 또는 계좌입금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계약에 따라 다르다.

###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업·모임

사실금융·매입·부동산·매매·임대·전세·분양

◆직통:(062)227-9600 ◆FAX:227-9500

◆광주연성:001-107-228160 ◆충청:617-01-106334

※(금주)광주일보사

### 면책결정 공고

사 전 2004년 12월 30일 (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판사: 함교준 (062)218-\*\*\*\*\*

광주 북구 오차동 1005 오차주공아파트 207동 1202호

제1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2004. 1. 13. 200394112(2001하29) 결정

주 문 파산자를 면책한다.

2006년 6월 23일

광주 고등법원 재판관 판사 정길준 판사 이영환 판사 서정함

### 액화석유가스(LPG) 집안급급업자 선정공고

#### 영광 흥능 해주아파트

(25평형 27세대, 26평형 272세대)

- 참가자격: 광주 전지역업체
- 제출서류: 입찰참가서류일체 현재공공내역서
- 제출기간: 06년 7월 10일 오후 8시
- 제출장소: 전남 영광군 흥능읍 상하리 해주아파트 관리사무소
- 전 화: (061)356-1675

### 채권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6년 7월 5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결의되었으므로 본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06년 9월 5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06년 7월 6일

주식회사 터키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747-2 청산인 안명길

순천시 조계동 1800 송촌프라임 101-701

###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박대원(2005. 12. 30. 사망)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 시한에 따른 관할 법원 제1032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금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시간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6년 2월 14일

공고인: 1.장종준 2.박민아 3.박상돈 (위 청구인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 대리인 친권자 모정숙)

한정승인수리일: 2006. 7. 3

공고기간: 2006. 7. 6 ~ 2006. 9. 5

연락처: 광주광역시 중구 대인동 156 주선정화 회관 306호 변호사 박영국법률사무소 장종준(☎226-5551)

### 분할합병공고

(채권자의 채권공고)

주식회사 광안전력(이하 “광안”)과 주식회사 연안전력(이하 “연안”)은 상기 2006년 07월 04일 각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광안”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문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광안”과 합병하기로, “광안”은 존속하며, 합병대상 300조의 33%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안전력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의거하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까지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익 불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 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06년 7월 6일

“광안” 주식회사 용익전력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동 898-2 대표이사 홍일표

“연안” 주식회사 연안전력 서울 은평구 역삼동 44-13 대표이사 전세진

### 어음가게 담보

◆어음 1,000만원 이하 환영 [月2~5.5%] (등록업체)

010-3009-6633

### 분양대행전문회사

#### 분양대행 전문-분양이 안되십니까?

\*아파트/상가/빌딩/전원주택/기타부동산관리

부동산 개발 관리-토지개발을 준비하십니까?

부동산 투자 클럽-투자유망곳을 찾고 계십니까?

광주·전남 공인중개사 협력체구성

분양! 상담과 상의하시면 길이 있습니다.

(주)청담 D & C 062)382-4984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옆

청담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담전화:062)381-0049

- 광주권 아파트/토지/상가 건물-매물접수
- 아파트 분양권 전문-분양권매매 상담현영
- 아파트 부지 구함
- 이주자 협의택지 구함
- 필요하신 부동산 구매드립니다
- 부동산 투자상담 현영

## 공무원 대 특강

### 현재 접수중 (주·야 종합 단과)

노랑진 올스타팀 초청 기념 이벤트

#### 7월 특강 접수자에 대한 혜택

1. 교재3권 무료 증정 (9만원 상당)	2. 문제풀이 반 접수시 (수강료 40%DC)
3. 정독서실 이용료 (30%DC)	4. 과목별 테마특강(주1회) 기초영어 오전 특강

★ 마감유의 ★

서울시 10월 1일 공채 대비 / 문제풀이 개강 8월 1일

•매가톤급 자신감•

### 메가고시학원

http://www.gmega.co.kr

■위치: 전남여고 후문 건너편(구.한빛고시학원 자리) ■상담전화:(062)226-5050